

□ 통일교육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계획

대교협은 7월 3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홀리데이인 서울)에서 '통일을 대비한 교육 지원법(안)의 제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강연 : 통일교육법 제정의 의의(통일원장관)

△ 주제발표 I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법의 제정 필요성과 성격(장명봉 국민대 법학연구소장)

△ 토론 : 이태일(동아대 총장), 신정현(경희대 교수), 박용현(서울대 명예교수) △ 주제 발표 II : 통일교육법 제정에 따른 통일교육체제의 개선방안(이영선 연세대 통일연구원장) △ 토론 : 이경숙(숙명여대 총장), 박문갑(서울교대 교수), 이우영(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문의 : 현경석(대교협 연구개발부 선임연구원, 전화 : 02-783-3065)

□ 1996년 대학교육 발전 지표 분석 결과 발표

대교협은 5월 20일 대학교육 발전지표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교협은 매년 대학의 교육여건을 조사하여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번의 조사는 '96년 5월 164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

로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한 158개 대학의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주요 현황은 학생, 교육과정,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대학교육 발전지표』에 수록했다. △ 문의 : 이영학(대교협 평가관리부 연구원, 전화 : 02-783-3068)

□ 연구보고서 및 자료 발간

● 대학의 개혁과 미래 - 대학 장기 발전계획의 비교 분석 (연구보고 97-2-149)

이 연구는 각 대학 장기 발전계획의 내용 중에서 교육개혁 및 대학개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대학의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이 된 내용은 대학발전의 목표 유형, 특성화 분야, 학생 규모 계획, 학과 통폐합 및 학부제, 교수평가제, 학연산 협동, 국제협력, 행정조직의 개혁, 재정 소요액 및 조달 방안, 그리고 단계별 시행 계획 등이다.

분석 대상 대학은 26개 대학으로서, 이를 설립 주체별로 보면 국립 8개교, 사립 18

개교이며, 소재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소재 13개교, 서울 이외 지역 소재 13개교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6년 1월부터 3월까지였다.

△ 연구자 : 이현청, 나민주 (이상 대교협).

● 대학 신입교수를 위한 연수교재 개발 연구 (연구보고 97-3-150)

이 연구는 대학 신입교수의 연수 교재 개발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육의 변화 추세와 학생소비자 시대를 위한 대비 △ 21세기를 대비한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 동향 △ 대학 종합평가와 대학의 질 관리 △ 일본 대학교육의 개혁과 변화과정 △ 대학이념의 변천과 그 정립 △ 대학교수의 책무 △ 대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대학수업의 과정과 교수법 △ 대학생 지도와 상담의 기초 △ 대학교수의 연구와 논문지도

△ 연구자 : 황응연(고등교육연수원장), 구병림(대교협 사무총장), 김옥환(세종대), 김재은(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준희(후쿠오카 여학원대학 초빙교수), 이대운(연세대), 이성호(연세대), 이현청(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